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 2배 많았다

5년 평균 연휴 전날 825.4건...연휴 중엔 400건대
졸음운전·고속도로 사고 추석 당일 ↑... '고향길 조심'

최근 5년 추석 기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귀성 행렬이 몰리는 연휴 전날에 사고가 빈발하고 사상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이 밝힌 지난 2015~2019년 추석 연휴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5년 평균 사고 발생 건수는 연휴 중 400건대를 기록한 데 반해 연휴 전날에는 825.4건에 이르렀다. 연휴 중 평균 사고 발생은 추석 전날 478건, 추석 당일 418.4건, 추석

다음날 432.8건 등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사고 건수는 480.8건으로 집계된다. 사상자 또한 연휴보다는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직전에 많이 발생했다. 연휴 전날의 경우 사망 15.6명, 부상 1184.4명 등 사상자 수는 1200명에 달했다. 반면 추석 전날은 사망 9명·부상 805.4명, 추석 당일은 사망 6명·부상 910.6명, 추석 다음날은 사망 6.8명·부상 800명 등으로 집계됐다.

5년 간 추석 연휴 일평균 사망자 수는 9명, 부상자 수는 856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을 음주운전, 졸음운전, 고속도로 사고 등으로 보고 있다. 음주사고는 연휴 전날 최대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오후 8시~오전 2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추석 당일에 가장 많았으며, 취약 시간대는 낮 12시~오후 6시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사고는 교통량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과 연휴 전날 순으로 사고, 사상이 많았다. 노선별 평균 사고 발생 건수는 경부고속도로 17.8건, 서해안고속도로 9.2건, 영동고속도로 7건 등이었다. 경찰은 올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양행순찰차 21대, 경찰헬기 16대, 드론 7대 등을 동원해 고속도로 과속·난폭 운전, 갓길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예방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연계 국도 등 주요 혼잡 지역에 대한 교통관리를 하면서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후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졸음쉼터, 휴게소에서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전남지역 독감백신 접종자 31명 '이상반응 없어'

목포서 31명 일시 접종 중단백신 맞아
해당 백신 '냉장유통 유지하며 공급돼'

전남도는 정부와 백신 조달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이 공급한 일시 접종 중단 독감 백신을 목포시에서 31명이 접종받았으며 현재까지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 조사 결과 목포에서 접종이 이뤄진 백신은 콜드체인(냉장유통)을 유지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백신 유통차량의 온도기록지에

도 백신 보관 적정온도인 2~8도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자 31명은 목포지역 의료기관 2곳에서 접종 중단이 공식 발표된 지난 22일 오전 10시 이전인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접종 받았으며, 접종자 중 아직까지 이상 반응을 일으킨 사례는 없다. 전남도는 목포시와 공조해 접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

고 있다. 특히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백신 제조사가 시행했던 안정성 평가에서 해당 제품들이 통상 25도에서 최소 14일, 최대 6개월까지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전남도는 질병관리청 백신 유통조사와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접종 재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접종된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적정 냉장 온도를 유지하고 배송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수남 기자

전남대병원 개원 110주년 맞아 '스마트병원 도약' 선언

"AI·빅데이터 기반" ...기념식 열고 발전 방향 제시

개원 110주년을 맞은 전남대학교 병원이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25일 오후 병원 6동 백년홀에서 개원 110주년·전남대어린이병원 개원 3주년 기념식을 열고 병원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인사 초청없이 원내 간부와 이사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대병원은 우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의료분야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연구력 강화에 주력한다. 병원 내 의생명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의대 3호관을 연구동으로 활용하는 등 연구시설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AI헬스케어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 참여로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됐으며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육성과제 선정,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 구축 등으로 연구력을 강화하

고 있다. 진료부문에서는 환자중심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해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위급상황의 입원환자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사망환자와 의료사고 감소의 효과를 거뒀다. 간단한 시술과 수술을 받는 환자 등이 오전에 입원해 오후에 퇴원할 수 있도록 낮병동을 운영해 입원적체량 감소했다. 또 코로나19 발생과 동시에 선별진료소를 운영,며 국민안심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감염병에 대응했다. /김도기 기자

추석 연휴기간 '화재 절반' 부주의 탓...각별히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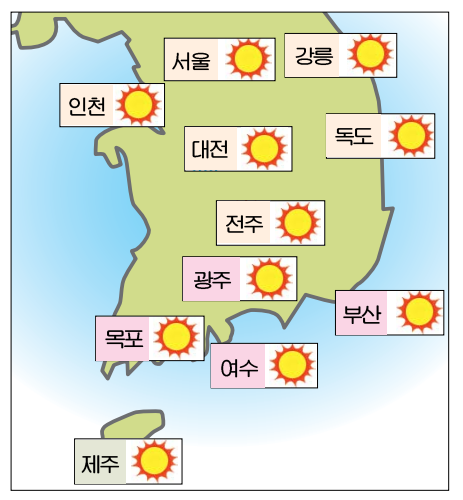
전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화재발생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본부는 추석 음식 준비 시 사소한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멀리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소방본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9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피해로 부상자 2명과 2억3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54건(56%), 전기적 요인 21건(22%), 미상 7건(7.2%) 등 순이었으며,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 26건(27%), 쓰레기 등 기타 야외화재 25건(25.7%), 입야 15건(15%) 등 순이다. 특히 화재 발생이 빈번했던 주거시설 화재의 원인 역시 부주의가 11건(42%)으로 가장 컸다. 부주의의 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 6건(54.5%), 담배불 3건(27%), 불꽃·불꽃·화원방치 2건(18%)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의 발화장소는 생활공간이 15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주방과 침실에서 10건이 발생해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각별한 화재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수남 기자

구름많은 날이 많고 낮 기온은 20~26도, 아침 기온은 11~18도로 선선하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바다의 물결은 1.0~2.5m로 일겠다.

■ 주간날씨

날짜	28일(월)	29일(화)	30일(수)	1일(목)	2일(금)	3일(토)
날씨						

지역	날씨	강수량	
		오전	오후
광주		13~25	0 0
나주		13~24	0 0
담양		13~22	0 0
순천		12~23	0 0
영광		14~24	0 0
목포		16~23	0 0
무안		15~23	0 0
진도		15~22	0 0
여수		17~23	0 0
광양		15~23	0 0
고흥		14~22	0 0
완도		17~23	0 0
해남		13~24	0 0
장흥		15~23	0 0



■ 서·남해 날씨

해역	풍향	풍속	파고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11~18	0.5~0.5
	먼바다	북동-동	14~25	0.5~1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14~22	0.5~0.5
	먼바다	북동-동	29~43	1~2

광주 시내버스 임금 협상 극적 타결

기본급인상 대신 '코로나19' 격려금 50만원 지급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5월부터 교섭해온 임금 협상이 25일 타결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2020년도 임금협상을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노조의 조정 신청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3차 조정을 거쳤다. 노사는 격려금 1인당 50만원 지급과 2021년도 시급을 2.6%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날 오후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한동주 기자

노사 합의에 따라 광주시내버스 대형운전원들은 다 지자체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합의한 월 8만 원 인상분 외에 추가 기본급 인상없이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내년은 2.6% 기본급 인상을 기본으로 임금교섭 후 최종 임금을 확정한다. 비슷한 근무환경을 지닌 대전과 유사한 수준의 합의안으로 분석된다. /한동주 기자

북구 추석 연휴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북구는 추석 명절 기간 중 귀성객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 및 8개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오는 4일까지 코로나19 집합제한시설 방역수칙 이행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전통시장, 체육시설 등

에 대한 집중 방역활동을 펼친다. 또한 코로나19 종합상황실과 함께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6개소의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은 30일과 10월 3일 2회에 걸쳐 수거한다. /김도기 기자

농장직영 진남멤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